

ごちそう

초등학생이 혼자서 TV화면을 보며 밥을 먹고 있다. 학교에서 돌아와서 쉴 틈도 없이 저녁을 먹고 학원에 간다. 그때 중학생인 언니가 돌아온다. 아침 동안에 엄마가 준비한 저녁밥을 데워서 서둘러 식사를 하고, 영어를 배우러 간다. 일이 끝나고 엄마가 돌아왔을 때에는 아이들은 없다. 엄마는 혼자서 밥을 먹는다. 아빠는 오늘밤도 늦어진다고 한다. 시대가 바뀌면 여러가지도 변화하지만 식사풍경도 그 하나다.

가족 모두가 모여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높여 웃는 모습은 옛날이 되어버린 것 같다. 놀고 피곤해서 배가 고픈 아이들이 “오늘 저녁은 무엇일까”, “아빠, 빨리 오안을 려나” 라고 식사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가족이 함께 테이블에 둘러 앉아 있는 것이 지금은 적어졌다. “식사는 가족의 관계를 강하게 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해져 왔지만, 식사도 가족의 관계도 많이 변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은 슈퍼나 편의점에 가면 음식이 널려 있다. 바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영양균형도 생각한 상품이 많이 진열되어 있다. 거기서 고르면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테이블에 진수성찬이 놓인다. “식사를 기대 하는 아이들에게 무슨 음식을 해줘야 할까”, “피곤하게 돌아온 아빠는 무엇을 기쁘다고 할까” 라고 많은 시간을 들여 식사를 준비하는 엄마의 모습은 적어졌다. 지금은 모두가 테이블에 둘러 앉아 식사는 그리운 풍경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일까.